

[ 사회 ]

광주시민협, 反FTA 폭력시위 비난

광주 YMCA·YWCA 등 광주·전남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안희욱·이하 시민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한미 FTA 협상중단 집회 당시 발생한 광주시청사 유리창 파손과 건물파손 행위는 대다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폭력'이었다고 비난했다."

시민협은 또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될 필요성은 있지만, 집회를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시킨 집행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이어 "29일 개최될 예정인 2차 집회는 평화적으로 열리도록 정부와 집행부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Q: 누군가 이유없이 주먹을 휘두르면?

A: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다



시책 면접 사상최대 7명 '고배'

여성합격률 38% 역대 최고

최근 치러진 제48회 사법시험 면접 시험에서 '부적격자'로 의심돼 심층 면접을 받은 2차 합격자 26명 가운데 7명이 최종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고시 면접시험 탈락자는 지난 10년 동안 단 1명이었으며 한꺼번에 7명이 불합격한 것은 사법시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는 28일 '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수석합격에는 2차 시험평균 62.07점을 획득한 박정은(여·26·서울대 법대 졸)씨가 차지했으며 연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최승호(21)씨가 최연소 합격자, 올해 46세의 김재용(전남대 철학과 졸)씨가 최고령 합격자의 영예를 안았다.

남성 합격자는 619명(62.27%), 여성은 375명(37.73%)으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지난해의 역대 최고기록(323명, 32.27%)을 갈아치웠다.

특히 이번 시험은 3차 면접시험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심층면접에 회부된 응시자 가운데 이론적으로 7명이 불합격했다. 1, 2차 시험 성적이 우수했던 한 응시자는 한 면접위원이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염두에 두고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맞받아치겠다.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다"고 대답해 떨어졌다.

연남뉴스

과격 폭력시위 끝장내자



'끌러가는 공권력' 쓰고 있다.

지난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저지 광주·전남지역 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로부터 방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나경우기자 mjna@kwangju.co.kr

약속어긴 시위 엄단하라

▲국민들 "이젠 지겹다"

▲고립되는 광주·전남

▲공권력 바로서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열린 집회는 10월까지 8천 500여 회, 참가인원은 200만 명이 넘었다. 이중 불법 폭력시위는 41회였고 711명의 경찰관이 이를 막다가 부상을 입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가량 늘어난 것이다. FTA 반대 시위 등으로 인해 시위 문화가 과격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하지만, 지난 22일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무기력하기

임진압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압력에 경찰총수가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에 따라 괜히 나섰다가 손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경찰 내부에 팽배해 있다.

이런 분위기는 공권력에 대한 공멸적인 도전으로 악순환 되고 있다. 월 평균 700명 이상이 공무집행 방해행위로 입건될 정도다.

광주 동부경찰 수사2계 안천순 계장은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 맨몸으로 시위대에 맞서

"각목과 쇠파이프 무장한 시위대에 밀려 내 뒤쪽에 있던 중대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넘어지고 아수라장이 되자 시위대가 와서 각목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전남 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박진완(22) 상경은 지난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광주·전남 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무릎 손가락·종자가 부러져 현재 서울 경찰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박 상경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각목으로 얻어맞아 여기서 죽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집회현장에서 공권력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폴리스라인(police line)이 지난 22일 어이없이 허물어졌다. '한미 FTA저지 광주·전남 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과격해진 시위대의 진격에 밀려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폴리스라인이 무너진 것은 물론

짜이 없었다. 전국적인 시위로 경찰력 동원이 어려웠다고는 하나, 평화시위 약속만 믿고서 충분한 정보도 없이 시청사 안에서 유리벽에 의지해 시위대를 막다 유리 파편 등에 43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하는 화를 자초했다. 장대 같은 죽봉이나 각목에 대응할 장비가 없어 방패와 방석모를 빼앗기는 수모도 당했다.

그렇다고 강경진압할 수도 없다. 시위대가 다치기라도 하면 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국민도 경찰·정부가 나서 폭력·과격시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바라고 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가 최근 전국 17개 시·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7%가 "폭력시위에 대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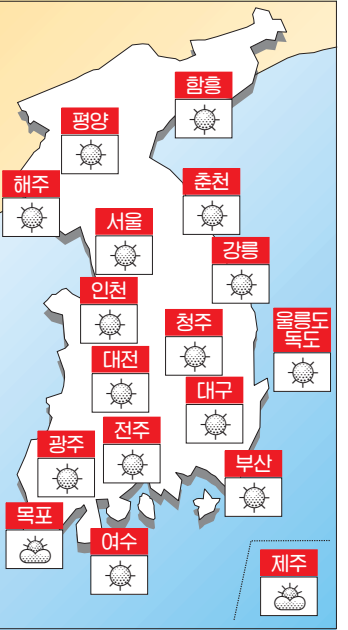
기온 뚝... 당분간 춥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끼었다. 서해안은 구름이 많았다.

11월 29일

(음 10월 9일) ◇전국날씨

Table with 3 columns: Region (e.g., 서울, 부산, 광주), Weather (e.g., 구름조금, 구름많음), and Temperature (e.g., 3~8°C, 5~9°C).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8:22 썰물 < 01:35 21:01 여수 밀물 < 03:39 썰물 < 09:32 16:14

▲해돋이 07:20 ▲해질 17:21 ▲달돋이 13:34 ▲달질 00:30

Table with 6 columns: Day (날짜), Day of Week (30(목), 12/1(금), 2(토), 3(일), 4(월), 5(화)), and Weather icons. Below it is a table for high/low temperatures (최저/최고) for each day.

주5일 수업 내년에도 월 2회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제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월 2회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정하게 되지만 현재처럼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수업을 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주 40시간 근무제 근무자수가 전체의 29.8%에

불과해 주5일 수업 전면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면 실시 시기는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소외계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나홀로 학생'들을 위해 학교 토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도서관·컴퓨터실·체육관 등의 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 남구청 '효사랑' 브랜드 대상

광주시 남구청의 '효사랑' 브랜드가 '2006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남구청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효사랑' 사업을 시작 ▲브랜드 네임 ▲캐릭터 ▲심벌마크 ▲로고 등 브랜드 용어 사용 표준안을 마련했다.

남구는 이후 지금까지 20종류 1천 833개 품목에 대해 특허 등록을 했으며, 기업 20곳과 효사랑 브랜드사용 협약을 체결을 맺었다.

브랜드 상품으로 그동안 올린 매출은 234억원. 이 가운데 4억 8000만원을 복지사업 기금으로 조성, 독거노인과 조손(祖孫) 가정

등 사회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지역 브랜드를 넘어 전국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최고 가치의 공익 브랜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은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정책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상으로,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브랜드 경영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인 우수기업과 자치단체에 주어지고 있다. 시상식은 29일 서울 과학종합대학원에서 열린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FURSYS office chairs. Text includes 'FURSYS 가 만든 의자는 다릅니다', '퍼시스와 축적된 노하우로 만든 첨단 메카니즘의 전시리즈', and '퍼시스남광주전시장 (062) 225-5100'.

Advertisement for Beijing University. Text includes '세계 최고명문 北京大學에 입학하십시오', '매해의 "중국원문과"가 되십시오', and 'www.bnu.edu.cn'.